

한방물리치료 필요성과 인지도 연구

이태식 · 송민영

동의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

Research of the necessity and awareness of the oriental physical therapy

Tae Sik Lee, Ph.D. P.T · Min Young Song, Ph.D. P.T

Dept. of Physical Therapy,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ABSTRACT

Background : With its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oriental medical treatment and the oriental physical therapy and With its research on the physical therapists' awareness of the oriental physical therapy,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 for the physical therapy development and the national health improvement in the future. **Methods** : This research had performed random sampling survey of 200 physical therapists in Busan city and had excluded 4 with insincere answers or some omission of survey contents. **Result** : The first most frequent disease type of the oriental medical center inpatients is paralytic sequela, the second is lumbago, the next is apoplexy in order. The first most frequent disease type of the outpatients is lumbago, the second is stiffness in the shoulder, the next is the sprain in order. And, it came out that most of frequent disease are required the physical therapy. **Conclusion** : This research results show high demands as well as the necessity of the oriental physical therapy. It seems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needs very serious examination on the oriental physical therapy execution.

Key words : lumbago, oriental physical therapy, physical therapy

I. 서론

물리치료란 질병 및 손상 등으로부터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적 운동, 열, 냉, 물, 광선, 전기 및 마사지 등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배성수, 1990)으로 의학의 모든 영역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고대 의사들은 물리적 인자를 치료에 적용하였으며, B.C. 3000년 전부터 이어져온 동양의 고유학문인 한약, 침, 뜸 또한 자연을 이용한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태성 외, 2008).

한의학에서는 인체에 이학적이고 기계적인 기전을 응용하여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것을 물리요법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인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오재근 외, 1994).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천인상응(天人相應)이라는 동양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체계를 세우고 실현방법을 개발해 왔으며, 서양의학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관인 원자론(原子論)과 히포크라테스, 갈렌의 사체액설(四體液說)로부터 체계를 세우고 발전시켜 19세기의 격동기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기에 이르렀다(백상룡, 1998).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요건으로 의술의 시초는 한의학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의보감의 출현으로 실정의학체계가 수립되었다. 1884년 의사알렌(Dr. Aileen)에 의하여 서구의학이 도입되었으나 일본 식민지하에서 의료 발전은 저조하였고 이 시기에는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조차 되어있지 않았다(고태성 외, 2008).

1949년 미국선교사인 Thelma B. Mwa 여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최초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선보인 이후 50년에 이르렀으며(윤정규 외, 2008), 2009년 현재 65개 대학에서 물리치료를 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서양의학보다 앞서 한의학이라는 자연의학이 체계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서양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들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방물리치료는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방의료와 한방물리치료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물리치료사들의 한방물리요법에 대

한 인지도를 조사 연구하여 향후 물리치료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0년 5월 현재 부산·경남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그 중 20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 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4명을 제외한 196명을 대상으로 최종 통계처리 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방법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응답하게 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간 걸쳐 진행하였다.

III. 연구배경

1. 한방 의료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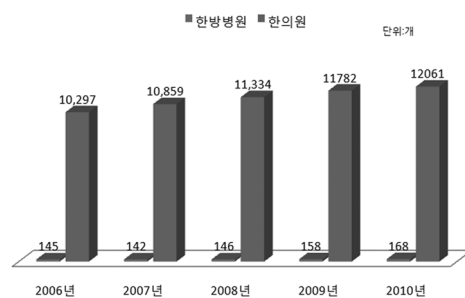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한방의료기관 현황

(그림 1)은 2006년에 한방병원이 145개, 한의원이 10,297개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5년 후 2010년에는 한방병원은 168개, 한의원은 12,061개로 증가된 것을 보

여주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한방 의료기관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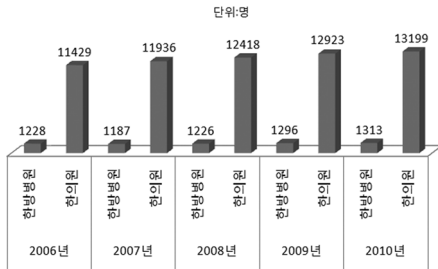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한의사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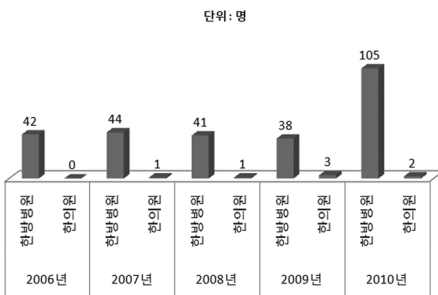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한방근무 물리치료사현황

(그림 2)와 (그림 3)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와 한방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나타나고 있다. 한의사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의 수는 2006년에 42명, 2010년에는 107명이 등록되어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자료).

3. 한방 의료기관 내원환자 질병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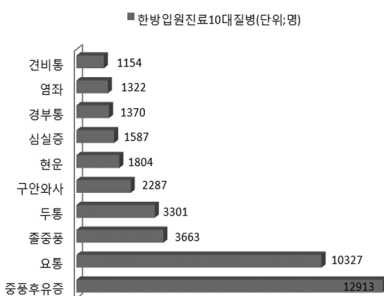


그림 4. 한방 의료기관 입원환자 질병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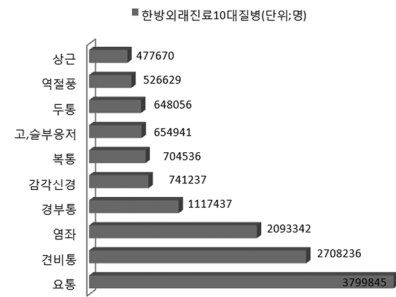


그림 5. 한방 의료기관 외래환자 질병분포

(그림 4), (그림 5)는 최근 2년간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질병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입원환자인 경우 중풍후유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요통, 졸중풍 순이었다. 외래진료의 경우 요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견비통, 염좌 순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

이는 한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절대 다수가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의 부재로 인하여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들의 일반사항.

표 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연령	20대	빈도 28	49	77
	연령의%	36.4%	63.6%	100.0%
	30대	빈도 48	28	76
	연령의%	63.2%	36.8%	100.0%
40대	빈도	17	21	38
	연령의%	44.7%	55.3%	100.0%
50대	빈도	4	1	5
	연령의%	80.0%	20.0%	100.0%
전체	빈도	97	99	196
	연령의%	49.5%	50.5%	100.0%

(표 1)은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석결과 연령별

로는 20대, 30대, 40대 순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59.5%, 여자 5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부산지역의 물리치료사 남녀 성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들의 근무기관별 분포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대학병원	빈도	6	2	8
	종별%	47.3%	25.0%	100.0%
종합병원	빈도	33	18	51
	종별%	64.7%	35.3%	100.0%
준종합병원	빈도	17	21	38
	종별%	44.7%	55.3%	100.0%
전문병원	빈도	8	5	13
	종별%	61.5%	38.5%	100.0%
요양병원	빈도	7	9	16
	종별%	43.8%	56.3%	100.0%
의원	빈도	18	34	52
	종별%	34.6%	65.4%	100.0%
한방병원	빈도	2	1	3
	종별%	66.7%	33.3%	100.0%
보건기관	빈도	6	9	15
	종별%	40.0%	60.0%	100.0%
전체	빈도	97	99	196
	종별%	49.5%	50.5%	100.0%

(표 2)는 응답자들의 근무기관별 분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원급기관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분석에서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즉, 대형병원에는 남자 물리치료사 비율이 높은 반면 의원에는 여자물리치료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한방 의료기관 근무경험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근무 경험 있다	빈도	16	8	24
	경험%	66.7%	33.3%	100.0%
경험 없다	빈도	81	91	172
	경험%	47.1%	52.9%	100.0%
전체	빈도	97	99	196
	경험%	49.5%	50.5%	100.0%

(표 3)은 한방의료기관에 근무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전체 196명 중 24명만이 근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한방의료기관 근무 고려한 경험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빈도		
근무 고려 있다	빈도	19	14	33	
	근무고려%	57.6%	42.4%	100.0%	
고려 없다	빈도	78	85	163	
	근무고려%	47.9%	52.1%	100.0%	
전체	빈도	97	99	196	
	근무고려%	49.5%	50.5%	100.0%	

(표 4)는 한방의료기관에 근무를 고려하였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196명 중 33명만이 근무를 고려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 한방물리치료 인지도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필요성과 양·한방 물리치료의 동일성, 한의사의 물리치료이해와 신뢰도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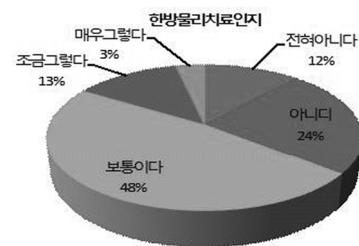


그림 6. 한방물리치료인지

(그림 6)은 한방물리치료에 대하여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그렇다’가 3%, ‘그렇다’가 1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물리치료 교과과정에서 한의학 부분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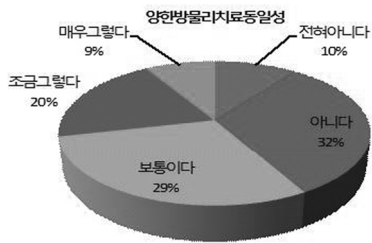


그림 7. 양·한방물리치료 동일성

(그림 7)은 양방물리치료와 한방물리치료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아니다’와 ‘아니다’가 42%로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양방과 한방의 물리치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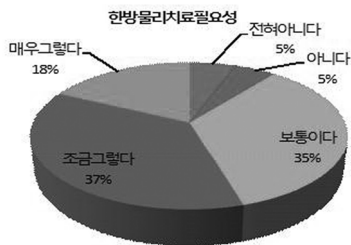


그림 8. 한방물리치료필요성

(그림 8)은 한방 의료기관에도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그렇다’가 18%, ‘조금그렇다’가 37%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5%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비율로 보아 대체적으로 한방 의료기관에도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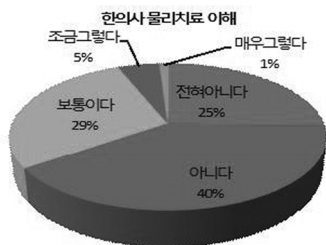


그림 9. 한의사의 물리치료 이해도

(그림 9)는 한의사도 물리치료를 대하여 잘 알고 있

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그렇다’가 1%, ‘조금그렇다’가 5%로 물리치료사들은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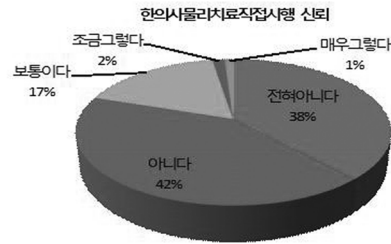


그림 10. 한의사의 물리치료직접시행 신뢰도

(그림 10)은 ‘한방물리치료보험급여’시행 시 한의사가 직접물리치료를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아니다’가 38%, ‘아니다’가 42%의 응답률을 보여주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률로 보아 물리치료사들은 ‘한의사가 직접물리치료를 시행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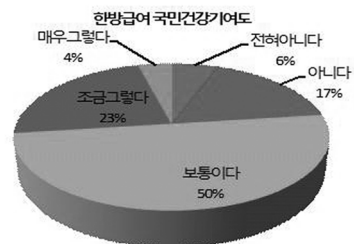


그림 11. 한방물리치료급여 국민건강기여도

(그림 11)은 ‘한방물리치료보험급여화’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5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금그렇다’가 23%, ‘매우그렇다’가 4%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비율로 보아 질문에 답한 대부분의 물리치료사들은 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화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고 찰

한방물리치료는 가장 원시적인 치료방법으로 시작하여 점차 사고의 발달로 인하여 생명체가 생활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해 나가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취한 여러 가지 반사적인 행동으로부터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배주한, 1998).

장문경(1995)에 따르면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접목하는 물리치료 항목이 전기치료와 운동치료였으며, 신길조 등(1992)은 중풍환자의 한방물리치료에 있어 수기요법과 전기치료가 주요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의 물리치료가 한국에 도입된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한방물리요법과 원활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서양의학, 특히 병리조직학의 발전과 더불어 동양의학이 쇠퇴하여 한방물리치료도 민간요법이나 사적소유물로 소외 되어졌다(이휘준, 2004).

이러한 원인중의 하나는 서양의학이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과학의 기초위에서 성장한 반면(강순수, 2002) 한의학은 추상적이며 많은 임상관찰과 경험을 통하여 정리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송호준 외, 2008).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침구술의 붐을 타고 한방물리치료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약과 침구에만 의존하여 단조로웠던 한방치료가 한방물리치료의 병행으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임상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이휘준, 2004).

이와 같이 만성적이고 노인성인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주를 이루는 한방의료 형태는 물리치료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제도와 상황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물리치료사들은 학부에서 교과과정 중 전공과목에서 90~120학점을 이수하지만 의사들은 전공교육과정 160학점 중 물리치료전공 관련으로 1~3학점을 이수하고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제정되어진 ‘의료기사에 속하는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규정된 업무를 행하게 되어 있다(의료기사법 제2조)’라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제한으로 조정과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구봉오 외, 2010), 한의사 또한 치과의사와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와의 개연성에서 보다 용이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세계 물리치료연맹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보건의료전문직으로 포괄적인 의료기술을 제공하며, 환자의 건강관리 및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박윤기, 1990). 이처럼 세계적으로 전문화되어지는 물리치료 영역의 추세를 인지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문 의료영역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수많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양방과 한방의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의료인 본연의 자세를 잊지 말고 국민의 필요욕구에 의하여 전문적인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한 양·한방물리치료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와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한방물리치료의 필요성과 인지도를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 물리치료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정책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부산지역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한방병원의 증감률은 변화가 미미하지만 한의원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의사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방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미미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질병유형은 1위가 중풍후유증이며 다음이 요통, 졸중풍 순이었고, 외래환자의 질병유형은 1위가 요통이며 다음이 견비통, 염좌 순으로 대부분의 다빈도 질병이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대상자 196명 중 남자가 49.5%, 여자가 50.5%였으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의료기관에는 남자가 많았으며, 의원에는 여자가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한방물리치료에 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16%만이 알고 있다고 답하여 대학의 물리치료과 교육과정에 한방물리치료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치료사 58%는 양·한방의 물리치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 5) 응답자의 10%만이 한방물리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답하여 대체적으로 물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응답자의 23%만이 한방물리치료급여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하여 대체적으로 한방물리치료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한의사에 의한 직접물리치료 시행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방 의료의 특성상 물리치료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요구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보건 의료계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순수. 한의학의 전망과 우리들의 역할. 대한한의학 방제학회지. 10(2):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지표. 20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지표. 2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지표. 20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지표. 20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지표. 2009.

고태성, 권용현, 김기열, 김명철, 김상수, 김석환 등. 물리치료개론. 도서출판테라북스; 2008.p.31-41.

구봉오, 이상열, 김강훈 등. 대한물리의학회지 2010;5(2):143-150.

박윤기. 물리치료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0;2(1):9-20.

배성수, 김용천, 박흥기, 이현옥, 이현일, 장정훈. 물리치료학개론. 대학서림; 1990.

배주한, 김상수. 도인술과 한방물리치료.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8;10(2):195-200.

백상룡, 박찬국.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질병관에 대한 비교연구. 경희한의대논문집 1998;21(1):55-89.

신길조, 조기호, 이원철 등. 중풍환자의 물리치료에 대한 고찰. 대한한학회지 1991;12(1):119-130.

송호준, 권동렬. 한의학의 과학원리. 의성당; 2008. p.3-10.

이휘준. 한방물리치료학. 대학서림; 2004. p.151-202.

오재근, 이종수, 김성수. 물리요법분야에서 전기치료 기기의 임상적 활용. 대한한학회지 1994; 5(2): 354-372.

윤정규, 김상엽, 김용수, 신희준, 안호성, 윤영대 등. 물리치료학개론; 2008, p.35-74.

장문경. 양·한방 물리치료의 차이점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995;2(2):569-576.

논문접수일(Date Received) : 2012년 5월 21일
 논문수정일(Date Revised) : 2012년 6월 8일
 논문게제승인일(Date Accepted) : 2012년 6월 21일